

# 日本 大德寺<sup>\*)</sup>의 龍源院庭園의 組織性에 關한 研究

安 啓 福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造景學科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Ryu Gen In at Dai Toku Ji Temple in Japan.

Ahn Gye-Bo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o prove one factor among many ones tha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the Japanese Garden's pattern. It is believed by this study that distinguished Japanese Garden's pattern are made possible by an organized ability of the Japanese traditional landscape artists who had ability to develop a diversified forms of applications within the organized framework. To verify this assumption, the study has chosen Ryu Gen In, temple garden that is considered to determine the pattern of Japanese Garden best with a new concept;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as follows:

1. Ryu Gen In, consists of a series of building and five-small gardens, is largely organized by the union of two geometric formations: concave and convex. Each garden as a sub-organization is further organized with a series of tree-branch typed structure.

2. The five-small gardens are formed into a whole system by connecting each one with floor. This connection makes a timely organization.

3. Each small garden is further organized allotted roles, namely, depends upon whether they play a major or minor role.

4. It is believed that sands and moss play a controlling role to combine the elements into one within each unit of small garden.

5. It is found that figured sands, moss, sands and moss, or shrubs are used as means of organization to connect the small group elements within each small gardens.

6. It is considered that buildings and mud-walls are used as means of separation between Ryu Gen In and an outer world, and between small gardens.

\*) 京都市 北區 紫野 大德寺町 53

## I. 序論

本 研究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韓國과 日本을 비교해 볼 때, 日本은 社會 전반에 걸쳐 다른 社會組織과 文化를 갖고 있는 국가라는 것<sup>1)</sup>을 느끼고 난 다음, 역시 日本의 庭園도 組織化되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관점에서 研究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日本의 庭園樣式形成 理論과 觀點은 思想이나 宗教, 文化, 風土, 또는 人間中心의 관점에서 유명한 作庭家나 河原者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들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思想的인 측면이다. 韓國에도 神仙思想이나 佛敎가 있었는데도 왜 日本에만 그러한 특유의 양식이 성립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었고,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概念的 導入을 「組織」으로하게 되었다. 즉 日本의 庭園樣式을 形成시킨 여러가지의 要因 가운데, 日本人들이 가지고 있는 組織化하는 能力과, 組織化의 짜임새 틀 속에서도 이것을 應用 展開 시키는 능력에 의해 여러 庭園樣式이 可能했다는 觀點을 論證하기 위한 것이 本 論文의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東京, 京都, 岡山, 愛知縣을 조사해 왔는데, 그 가운데 本 論文에서 주장하는 組織이라는 概念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龍源院을 우선 研究對象地로 삼아 그 結果를 시험적으로 정리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概念을 바탕으로 日本의 諸庭園樣式別 組織의 特徵, 時代別 組織의 變化등에 관한 研究가 계속될 必要性이 있다고 본다.

## II. 組織의 概念

### 1. 組織의 意味

組織의 辭典的 意味를 살펴보면 韓國<sup>2)</sup>과 日本<sup>3)</sup>이 다르다. 韓國은 組織을 단체 또는 社會

를 구성하는 각 要素가 결합하여 有機的인 움직임을 갖는 統一體로 되는 일이라고 한 반면에, 日本은 特定の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個人 및 諸集團에 專門分化시킨 役割을 부여하고 그 活動을 統合調整하는 裝置라고 되어 있다.

즉 日本 辭典에서의 定義는 特定の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점과 專門分化시킨 役割을 부여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本 論文에서는 研究對象地가 日本人 만큼 일단 日本의 辭典의 定義에 의한 論文의 展開가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에서 이 개념에 의해 圖式化한 것이 (그림 2)이다.

### 2. 組織의 類型

우선 廣範圍한 觀點에서 組織의 類型을 살펴 보면 國家, 軍隊, 企業體 등은 모두 集團이 갖고 있는 特定の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組織을 編成하여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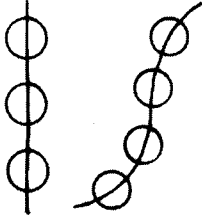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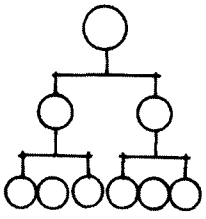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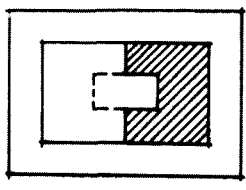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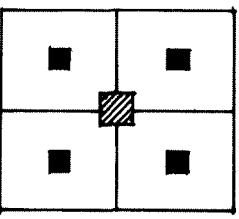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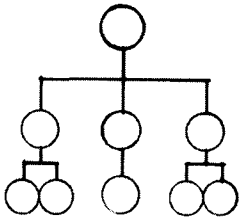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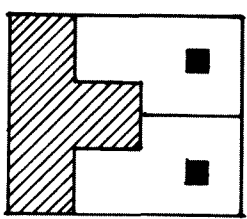
組織의 類型分類는 機械的인 組織과 有機的인 組織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組織의 어떤 부분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sup>4)</sup>. 이러한 經營 組織에서 一般的으로 나타날 수 있는 類型과 그동안 調査를 통해 나타난 組織의 類型을 整理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一列式은 線形式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 흔히 軸을 이용하여 여러 空間要素들을 묶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일본정원에서 飛石은 線形式으로 組織化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線形式은 선이 2-3 갈래로 나누어질 수도 있으며 이것은 複合線形式으로 이해될 수 있다.

階段式은 최고 정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세부정점이 있어 점차 넓어지는 형태이다. 社會의 여러 조직들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相互貫入式은 건물과 정원이 있는 그 사이에 완충공간, 공동공간의 성격을 갖는 마당 또는 광장과 같은 어떤 공간이 존재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또는 완충공간 없이 凹凸式으로 꼭짜여진 형태도 될 수 있다. 두 대상의 비중에 따라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감싸고 있는 짜임새로도 될 수 있다.

據點式은 空間의 規模가 커질 경우 어떤 하나의 構成 要素에 의해 空間 통제할 수 있는

<p>一列式(線形式)</p> 	<p>階段式</p> 	<p>相互貫入式</p> 
<p>據點式</p>	<p>複合式</p>	
		

(그림 1) 組織의 類型

能力이 상실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체를 통괄 할 수 있는 어떤 것과 함께, 지역을 소규모의 공간으로 나누어 소규모의 공간속에 폭포(瀧), 中島, 橋 등을 넣어 공간을 통제 가능하도록 조직화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를 據點式이라고 할 수 있는데 修學院離宮이 이와 같은 類型이라고 할 수 있다.

複合式은 여러가지 예를 들 수 있으나 (그림 1)에서는 相互貫入式에서 據點式이 도입되거나 階段式에 一列式이 도입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 3. 組織化를 위한 細部方法論

지금까지는 巨視的인 관점에서 조직의 유형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였으나 본 항에서는 조직이 갖고 있는 辭典的 意味로 부터 細部 組織化를 위해서 어떤 짜임새 틀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前述한 組織의 辭典的 意味로 부터, 特定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첫째 (그림 2)의 A처럼 제1차적으로 어떤 區分의 裝置가 필요하다. 공간속에 두 개의 어떤 요소가 놓여 있는 것보다는 구분이 된 공간 속에 두 개의 요소가 들어

가는 것이 더 조직적으로 보인다. 물론,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2)의 B와 C의 내용과 같이 主와 從(主役과 助役), 一化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구분시켜 독립적으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일본정원의 공간구조가 일차적으로 위요공간의 특성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외계로부터 독립된 세계로서 좁은 공간을 우선 “위요”에 의해 확립한다. 외부가 조망되고, 외부와 정원 내부를 연속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드물고, 담 또는 생울타리와 같이 부드러운 위요에 의해서, 그 역으로 외부와 차단해 완전 독립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높고 견고하고 틈이 없는 築地 등으로 위요한다<sup>5)</sup>.

둘째, 구성요소들 가운데 그 역할을 전문분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분화 시킨다는 말은 일을 중복되지 않게 분담시켜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2)의 B처럼 공간속에 유사한 두 개의 요소가 놓이기 보다는, 主役과 助役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조직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組織이 갖고 있는 意味에서 個人間的 전문분화시킨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구분의 장치까지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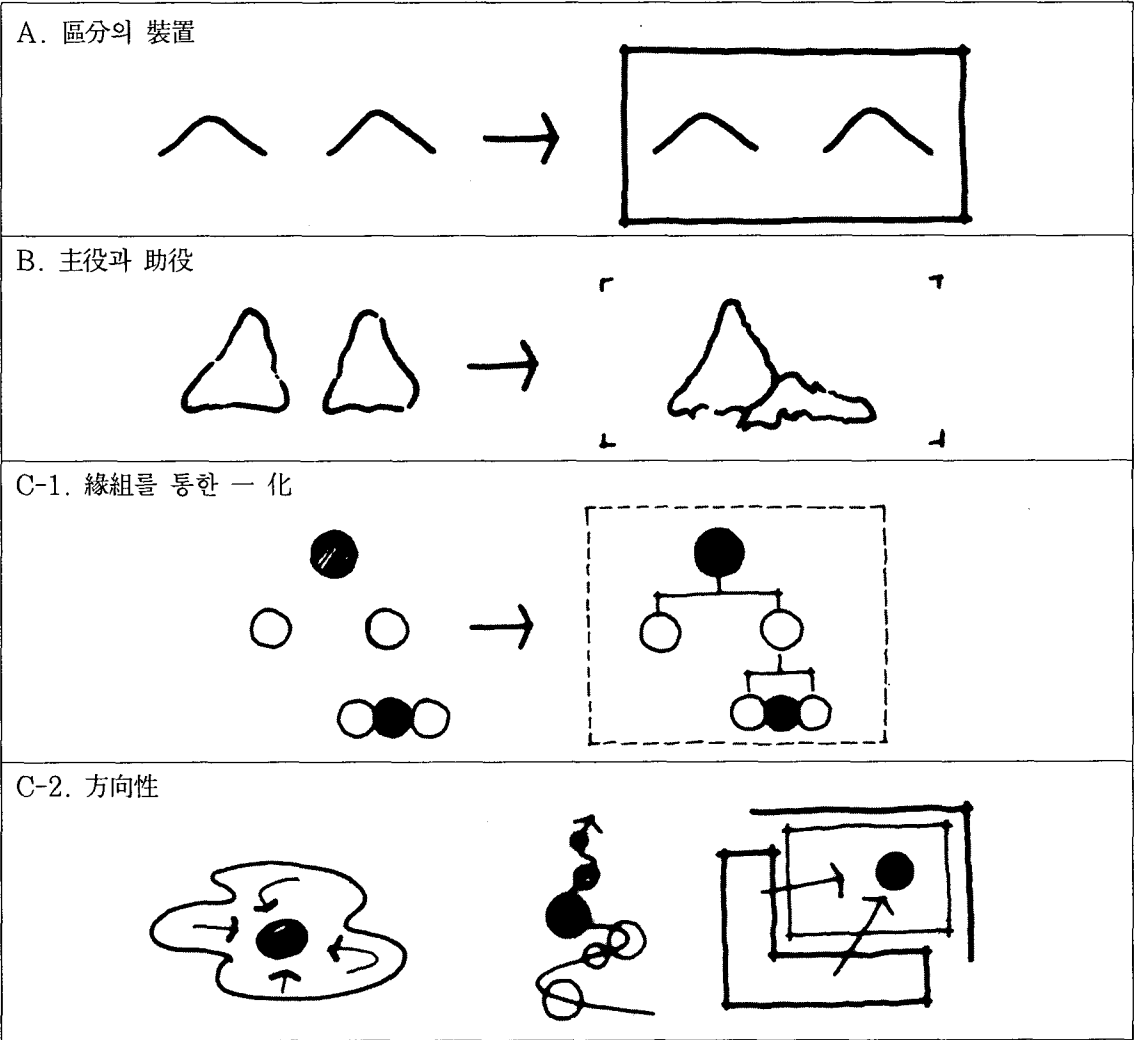
한다면 집단간의 역할을 전문분화 시킨 것이 되어 더 조직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환경은 물론 정원에서는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가 간단하지는 않다. 따라서 여러 구성 요소들간에 主役과 助役을 설정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을 全體的으로 統合調整 되어야만 完璧한 組織化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조정하는 틀로서 필요한 것이 緣組를 통한 一化, 方向性을 예시하고자 한다.

(그림 2)의 C-1은 여러 構成要素들 間에 비록 主役과 助役이 있다하더라도 전체를 체계적으로

묶어 조직성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통합조정하여 일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별개의 요소들에 대해 相關性을 부여하여 하나로 묶어준다는 의미에서 “緣組”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2)의 C-2의 세 그림은 공간에 놓여진 요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조직의 방법 가운데 시각적 흐름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예시한 그림이다. 主役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位階性과 함께 助役들이 놓여진 위치나 형태에서 발생하는 方向性을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전체를 통합시키는 짜임새 틀이다.



(그림 2) 세부조직화를 위한 짜임새 틀

C-2의 左側의 그림은 시각적 흐름성을 이용한 짜임새 틀 가운데 中央에 놓인 主役에게 향하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求心力”이라고 할 수 있다.

C-2의 中央에 있는 그림은 “上昇力”을 나타낸 짜임새 틀이다. 이것은 秋里籠島(1872)의 具足形 五ノ組之圖를 도식화한 것인데 돌을 배치할 때 전체의 흐름성이 上昇力을 갖도록 組織化하였다.

C-2의 右側의 그림은 平庭枯山水 庭園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集中力”을 이용한 짜임새의 틀이다. 主役을 보는 건물쪽과 視覺의 對象이 되는 主石과의 關係는 視覺이 항상 主役쪽으로 集中하도록 組織化한 것이다.

### Ⅲ. 調査方法

이러한 組織의 意味와 組織化를 위한 짜임새 틀이 구체적으로 日本의 庭園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調査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調査 및 分析을 實施하였다.

먼저 巨視的인 측면에서 組織의 類型을 分類하기 위해서 庭園의 平面構成에 대한 組織性을 調査하였다. 둘째, 庭園의 平面構成과 실제 느끼는 空間은 항상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庭園의 垂直的 要素와 水平的 要素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調査하였다. 셋째, 庭園 構成要素들을 專門 分化시킨 役割 즉 主와 從(主役과 助役), 庭園을 하나로 統合調整하는 要素와 그 밖에 대상지에서 특별히 활용된 조직화의 방법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庭園 組織表의 作成 순으로 진행하였다.

### Ⅳ. 分析 및 結果

#### 1. 庭園의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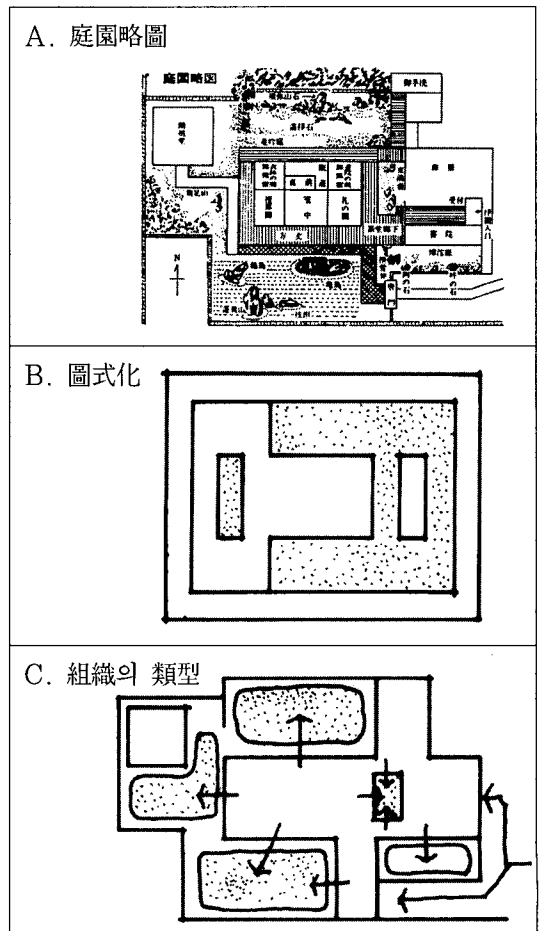
龍源院은 室町時代인 1502년에 東溪宗牧이 開創한 大德寺에 있다. 庭園은 方丈을 중심으로 南庭, 北庭, 동쪽의 壺石庭, 開祖堂 前庭, 그리

고 庫裡의 書院南軒 앞에 있는 阿吡의 石庭 다섯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림 3)의 A참조.

泥田(1973)의 研究論文<sup>6)</sup>에는 南庭에 石燈이 있었던 정원이었으나, 1980년 樹齡이 700여년된 山茶花(楊貴妃)가 수령으로 인하여 고사하자<sup>7)</sup> 정원 전체의 균형이 깨어져서 현재의 정원으로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 2. 平面 構成에 關한 組織性의 分析

龍源院의 平面 構成에 나타난 組織의 類型은 相互貫入式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庭園略圖를 圖式化시킨 다음, 組織의 類型化시키면 相互貫入型이 된다. 南庭과 開祖堂



(그림 3) 龍源院의 庭園略圖 및 組織의 類型

의 前庭, 北庭은 담에 의해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3개의 정원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거나 그 반대로 건물이 정원 속으로 들어와 있는 듯한 짜임새로 되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相互貫入式에서 건물 가운데 정원(東滴壺)이 있고 정원에는 堂이 있는 형태이다.

### 3. 空間的 組織性

龍源院의 5개 정원 가운데 東滴壺를 제외한 4개의 정원은 (그림 2)의 C-2의 맨 右側 그림과 같이 되어 있다. ㄱ字型的 건물과 ㄱ字型的 담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방형의 口字型空間을 만들고 그 속에 庭園을 두는 형식이다. 이러한 組織性은 平庭枯山水樣式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ㄱ字型的 담장인 築地塀은 組織化를 위해 주변과 구별하는 일차적인 틀로서 설치된 것인데, 日本庭園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築山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한편 空間의 連結과 連續性을 위해 건물과 담장이 만나는 부분은 완전히 붙여 놓지 않고 여백의 공간을 남기는 짜임새 틀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짜임새 틀 속에 그 空間의 주된 要素, 즉 主役이 位置하게 되는데 主役의 位置는 정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一枝坦의 主石은 方丈의 중심 연장선에서 한쪽으로 벌어난 위치에 있고, 龍吟庭의 主石은 方丈의 중심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 4. 各 小庭園別 組織性

1) 一枝坦 庭園(사진 1 참조. 앞에 있는 것이 龜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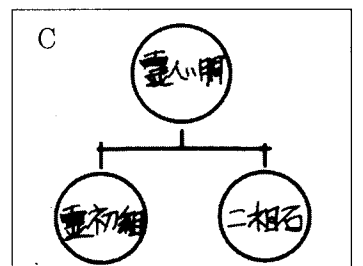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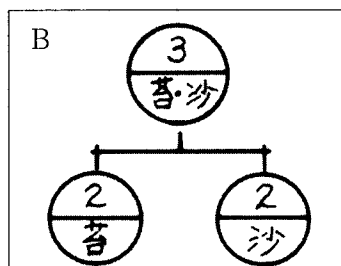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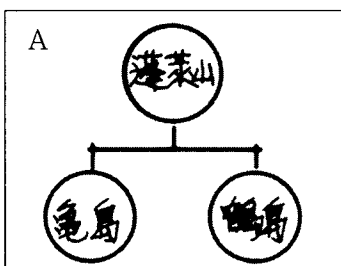
泥田(1973)에 의하면 一枝坦의 庭園의 主題는 “關”, 庭園의 構想은 “頌”, 庭園은 黑松, 石燈, 楊貴妃에 의해 構成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龍源院에서 만든 팜프렛에서는 神仙思想에 의한 蓬萊山, 龜島, 鶴島의 형태로 보고 있다.

이것은 作庭者가 “보여주고자 한 형태”와 현재 “보여지는 형태”와의 差異點<sup>8)</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두 관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組織性의 分析에 있으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조직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一枝坦 庭園의 概念的 組織은 <그림 4>의 A와 같고, 실제로는 이러한 개념에 의해 <그림 4>의 B처럼 조직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蓬萊山은 이 정원에서 가장 큰 體胴石을 主石으로 해서 3개의 돌로 石組되어 있는데, 緣組는



(사진 1) 一枝坦 庭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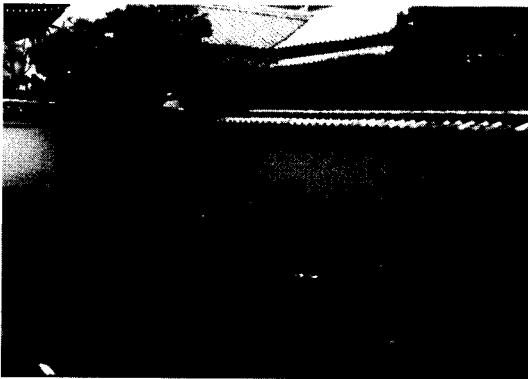
(그림 4) 一枝坦庭園의 組織

苔와 沙의 무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龜島는 2개의 돌이 主와 從의 관계를 가지며 苔에 의해, 鶴島는 2개의 돌이 역시 主와 從의 관계속에서 沙의 무늬에 의해 緣組를 갖도록 조직화되어 있다. 一枝坦 정원 전체를 하나로 一體化시키는 것은 沙로 되어 있다.

秋里籬島(1827)의 石組 方式<sup>9)</sup>과 比較해 보면 蓬萊山은 靈心胸의 組方, 龜島는 靈初組, 鶴島는 二相石의 組方으로 石組한 것으로 나와 있어 一枝坦은 部分別로 각기 다른 石組方式을 사용하여 組織化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龍吟庭(사진 2 참조)

龍吟庭은 약 80여평의 넓이에 20여개의 돌이 담을 따라서 소그룹으로 나뉘어 石組되어 있는 정원이다. 泥田(1973)에 의하면 庭園의 主題는 “眞僞의 辨別”, 構想은 “見地透脫”, 構成은 “妙峰孤頂草離離”에 기초해 축조한 것으로 보았다. 즉 孫子와 吳子가 단적으로 표현한 것을 빌어보면 해골 땅에 도착해



(사진 2) 龍吟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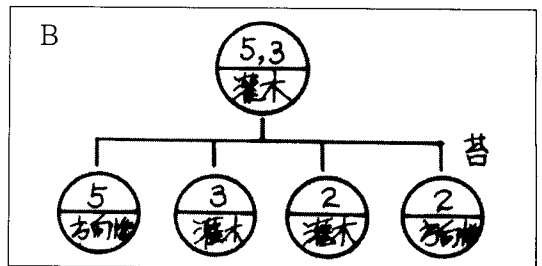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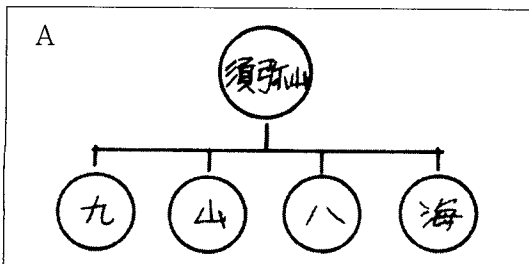
본 사람이 안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大橋治三과 齊藤忠一(1993)은 須彌山 石組<sup>10)</sup>로, 吉河功(1992)는 일종의 三尊石組 또는 枯龍石組<sup>11)</sup>, 相賀徹天(1989)는 兩者의 통합한 견해<sup>12)</sup>를 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보여주고자 한 형태”와 “보여지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多數의 見解인 須彌山과 九山八海로 본다면 庭園 構成 概念에 대한 組織은 <그림 5>의 A와 같이 圖式化 될 수 있다. 우선 외부와 구별시키는 짜임새 틀로서 築地 이 사용되었다. 5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2, 3, 5개 썩의 돌들이 배치되었는데 각각 主役과 助役으로 나누어 조직화 하였다. 각 下部組織을 연계시키는 緣組는 관목이나 方向性을 사용하였는데 下部組織을 구성하는 돌의 숫자와 緣組는 下部組織別로 다르게 하였다. 정원 전체를 통합 조정하는 짜임새 틀로는 苔가 사용되었다.

3) 東滴壺(사진 3 참조)

東滴壺 庭園은 方丈의 동쪽에 있는 庭園으로, pamphlet에는 日本에서 가장 작은 庭園으로 나와 있다. 外部와 구분하는 틀은 建物로 되어 있는데 총 5개의 돌이 놓여져 있다. 2, 1, 2 혹은 3, 2로 구분되게 石組하였는데, 하나의 돌을 선정하여 小庭園 전체의 主石으로 보이게 石組하기 보다는, 長方形의 庭園 양쪽에 놓인 2개씩의 石에 각각 主役과 助役이 區別되게 石組하였다. 이렇게 組織化한 理由는 삼면이 마루로 둘러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龍吟庭의 組織

4) 龍源院의 組織化

龍源院은 <그림 7>의 A와 같이,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외부와 구분시키는 짜임새의 틀로써 築地塀을 사용하였고, 庭園과 建物は 相互貫入式의 큰 조직들 속에 下部組織으로 5개의 小庭園이 階段式으로 組織化 되어 있는 類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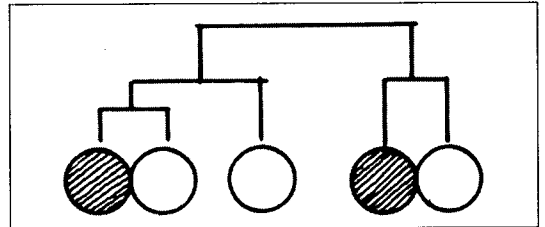


(사진 3) 東滴壺 庭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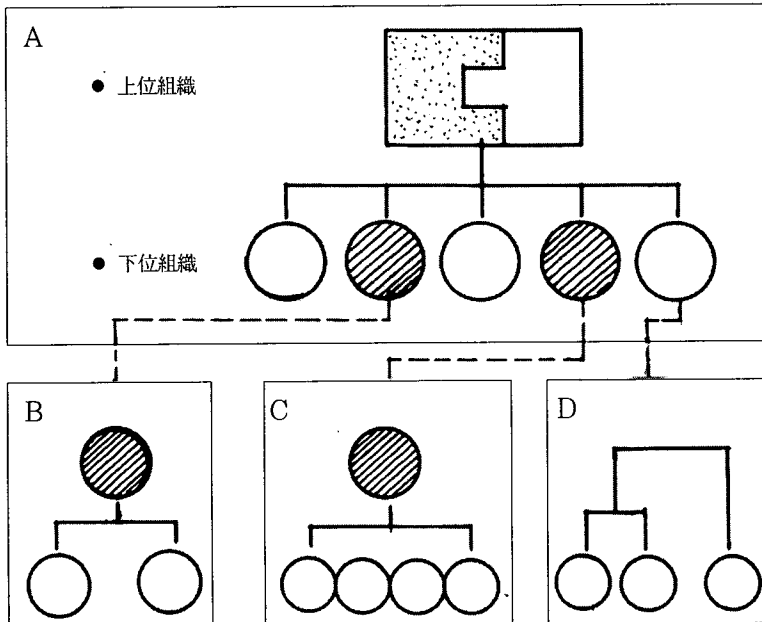
5개의 小庭園을 하나로 緣組시키는 것은 마루(廊下)이며, 結局 時間的인 組織化라는 方法을 사용하여 5개의 小庭園을 감상하도록 되어 있다.

5개의 小庭園은 主된 정원과 部된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小庭園別 組織化의 方法은 다른 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각 소정원내 소그룹별 조직화 방법도 그룹별로 다른 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사람들이 庭園을 組織化하면서도 組織을 應用 展開 시키는 能力에 의해 다양한 정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7)의 B, C, D와 같이 5개의 소정원별 조직표가 모두 볼 수 있으나 표현상 B, C, D만 넣었다. B, C, D와 같이 각 小庭園別로 구획시키는 짜임새 틀로써 築地塀 혹은



(그림 6) 東滴壺 庭園의 組織



- 築地塀
- 相互貫入式
- ← 마루
- ← 主·部庭園
- ← 築地塀 또는 建物
- ← 主役과 助役의 石組
- ← 沙의 무늬 또는 苔

(그림 7) 龍源院의 組織表



建物(東滴壺)가 사용되었다. 각 小庭園내에는 主役과 助役이 구분되어 소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小庭園 전체를 하나로 統合調整하여一體化 시키는 조직의 틀로서는 沙와 苔가 사용되었다. 각 小庭園내 主役과 助役을 연결시키는 組織化를 위해 苔, 沙, 沙의 무늬, 灌木, 方向性등이 사용되었다.

## V. 摘要

本 研究는 日本庭園樣式의 形成에 기여한 여러가지 要因 가운데 하나의 因子를 糾明하기 위한 論文이다. 즉 일본사람들이 갖고 있는 組織化에 대한 능력과, 組織化의 짜임새 틀 속에서 이것을 應用 展開 시키는 능력에 의해 여러 庭園樣式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觀點을 論證시키기 위해서, 우선 組織이라는 새로운 概念을 가장 잘 說明할 수 있다고 判斷되는 龍源院을 對象地로 選擇하여 分析을 實施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龍源院은 일련의 건물과 5개의 小庭園이 相互貫入型으로 組織化되어 있는 가운데, 下部組織으로서 각 小庭園은 자기나름대로 계단식으로 組織化 되어 있다.
2. 5개의 小庭園을 하나로 緣組시키는 것은 마루(廊下)이며, 結局 時間的인 組織化라는 方法을 사용하여 전체를 一體化시키고 있다.
3. 각 小庭園의 構成要素는 主役과 助役으로 나뉘어 조직화 되어 있다.
4. 각 小庭園別 단위에서 構成要素들을 하나로 統合調整시키는 역할은 沙와 苔가 맡고 있다.
5. 각 小庭園의 小集團을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것은 沙의 무늬모양·苔·苔와 沙·

灌木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6. 龍源院을 외계와 구분하는 장치 및 小庭園을 조직화시키는 장치로 建物과 築地堀을 이용하고 있다.

本 研究는 시험적으로 1개의 정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일본의 諸樣式別 組織性의 특징과 時代別 組織性의 變化에 關한 研究도 계속될 必要性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研究 結果는 앞으로 環境디자인에 있어서 空間을 짜임새 있게 組織化시키는 중요한 觀點을 提供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研究를 허락해 준 神戶藝術工科大學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가지 資料와 指導를 아끼지 않으신 近藤公夫 先生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 參考文獻

1. 양참삼(1994), 조직행동의 이해, 法文社, pp.271-279
2. 李熙昇 編(1982),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p.3330
3. 宋村明 編(1992), 大辭林, 東京, 三省堂, p.1406
4. 林昌喜(1995), 조직행동, 學現社, pp.531-542
5. 成瀬不二雄 外14人, 日本の美學16 空間, 東京, ぺ리칸社, pp.61-63
6. 泥田天瑞(1973), 庭園의 構想에 關する 研究(4)-大德寺龍源院庭園의 構想について-, 造園雜誌, 37(1): 17-23
7. 龍源院 팜프렛
8. 稻次敏郎(1995), 庭園俱樂部, 東京, 有限會社イッソプレス, p.73
9. 秋里籬島(1827), 石組園生八重垣 (上原敬二 編, 1973, 石組園生八重垣 解説, 東京, 加島書店, pp. 44-47)
10. 大橋治三, 齊藤忠一(1993), 日本庭園鑑賞事典, 東京, 廣濟堂, pp.116-117
11. 吉河功(1992), 石組의庭-鑑賞から技法まで-, 東京, 株式會社ダラフイック社, pp.30-31
12. 相賀徹天 編(1989), 探訪日本の庭6 京都(二) 洛中 洛北, 東京, 第一アートセンター, p.27